

buddhanews.com

# 내가 뭐가 되든지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 25면에서 계속

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뭘 좀 급격거리다가 내려왔지만, 거기를 보면 '어떤 것이 평등한 여래냐?' 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한마음으로 출현했으니깐.' 했던 말입니다. 또 '어떤 것이 평등한 중생들인가?' 하고 물었다면 같이 나왔으니깐, 같이 한마음으로 출현했으니깐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게 뭐니까? 이 세상을 다 돌아다니며 봐도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 자기 자신을 먼저 믿어라.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행하라.'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론으로만 '너를 먼저 찾아라.' 이렇게 했지 진실로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고 모든 걸 타의에서 구하게끔 해 놔요. 그렇게 말들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가고 있어요.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다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빼놓는 게 아닙니다. 불교 역시 그렇고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느 주머니에서 살고 있는지, 또 미래로 가서 어느 주머니로 나오는지 이거를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한 백지장 사이를 뛰어넘죠. 우리 마음이 어느 것 하나 고정된 게 없다는 것만, 이 세상살이가 고정된 게 없어서 무엇을 하든 나라고 내놓을 게 없다는 것만 알면 공한 이치의 진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고 좋은 거를 왜 그렇게 무디게 그냥 얹매고 애써야 됩니까?

눈물 나오게 하는 것 한 가지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만 인간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뭘 그렇게 먹고살기 위해서 애만 지탄합니까? 인생은 지금 요 모습을 가지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은데 그 떠 있는 배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바다도 없고, 배도 없고, 가고 읊이 없고, 그 가고 읊이 없는 까닭에 여여하게 가고 읊이 없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주머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타의에서만 찾았다면 우리는 이 주머니 속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몸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시 또 다른 모습을 해 가지고, 만날 이 주머니에서 뱅뱅 뱅뱅 뱅뱅 몇 생, 아니 세계생생을 돌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세 번을 거꾸꾸 태어나야 진짜 부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든 간에 꼬리꼬리 살던 습이 있어서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습에 의해서. 그러나 아가 말했듯이 사람 모습을 그렇게 내세울 게 없다는 자체, 바로 자기가 당면 그 자체여서 그냥 공했다고 생각을 할 때에 여여하게 그대로, 세상법이 그대로 즐겁고 그대로요. 내일 죽든지 이따가 죽든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 한

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지도 않고 가정을 망가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왜냐? 집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몸 속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잘 이끌어, 망하게 가는 길도 스스로 잘 가게 만듭니다. 주인이 있어서 잘 가게끔 하는데 왜 잘 못 갑니까? 믿고 안 믿는데 달려 있는 겁니다. 또 진짜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한다면 그냥 무조건 있다고 봐야죠. 자기를 움직이게 하니까.

어떠한 분야든, 의학이든 과학이든, 천체물리학이든 철학이든 다 그 한마음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분리해서 이런 걸 쓸 때는 이런 걸 쓰고, 저런 걸 쓸 때는 저런 걸 쓰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化)해서 나뉘면서 쓰는 거죠. 생활하는 거죠. 들고 낸다 할 때, 낼 때는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갖가지 용도대로 쓰지만 들릴 때는 한마음으로 들인단 말입니다. 한군데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 발전소가 하나라면 그 발전소에서 전력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가지각색으로 쓰는 전력이 다 한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그러

는데 전력이 나가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다 무시합니까? 전력이 나가는 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자기, 그 공(空)한 가운데서 출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묘법인지, 실천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지 몰라도, 아마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가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그렇게 실천을 한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내가 이만하면... 내가 이만큼 아는 데...' 이래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은 제일 최상승의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올라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맨 아래 지옥에서도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아신다면 이 세상에 잘한다고 내세울 게 뭐 있겠습니까?

나는 그전에 이랬습니다. 돌아다보면 내가 너무나 불쌍하고 기가 막혔는데 그 뒤에 또 생각을 하니까요, 허허,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게 어디 있어? 내가 나온 것도 없고, 내

가 한 것도 없고, 내가 가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물처럼 살고 있는데 그 물이 물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물이 못하는 거 있습니까? 모두 먹여 살리고 있고, 구멍물이 들어오든, 흙물이 들어오든, 빗물이 들어오든, 고름물이 들어오든 다 한마음으로 한바다로 해 주고 채찍질할 뻔 여지없이 채찍질을 하고 말입니다.

또 아주 맨 밑바닥에 있는 생물까지 살리기 위해서 한번 뒤집어 놓고 말입니다. 한번 뒤집어 놔야 생물들이 다 살 수 있거든요. 맨 밑바닥에까지 태양열이 갈 수가 없죠. 또, 뒤집어 놓지 않으면 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천연적으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아이고, 나같이만 산다면 걱정 근심이 없을 텐데.' 이럴 겁니다. 아마. 신을 보십시오. 산이 저렇게 우뚝 서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산은 그대로 묵묵히 내려다보

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체 마음의 탓이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지 육신으로 수행을 한다 하면 몸 떨어지면 수행도 떨어지고 수행한 거라도 없습니다. 말 잘한다고요? 말 잘하는 것도 몸 떨어지면 일 떨어지고 말 떨어지는 걸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내 근본에서는 세계생생에... 어떠한 물체든지 다 수레같이 바뀌가 돌아갑니다. 바뀌가 돌아가는 것은 어느 거든지 중심이 끼워져 있어요. 중심이 끼워져 있으면서 그 중심은 움직여지지 않아도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배출해서 바뀌를 구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바뀌는 바로 중심의 심봉에다가, 사람의 근본이 저 심봉이라 하면 그 심봉을 믿고 거기다가 다 맡겨 놓고, '맡겨 놓고' 라는 언어도 붙지 않죠. 그냥 심봉이 끼워져 있으니까 그냥 바뀌가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삼십살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심봉이 그대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믿고 그냥 하면 되지, 거기에 왜 탄소리를 합니까? 탄정을 하고, 탄생각을 하고, 이렇게 맡이죠. 금방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다 하더

라도 꺾일 웃음이 나올 수 있어야 그건 무난히 돌아가죠. 내가 힘이 없으면 웃음은 커녕 얼굴이 찌푸러지고, 울그락불그락해지고, 한숨이 나오고, 열이 치밀고 이러죠. 내가 그만큼 힘이 있다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봉이 그 힘을 가졌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전체 바뀌가 굴러가게 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 힘은 어떤 용도로 바뀌가 굴러도 아주 서슴없이 그 힘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형제법우들이 이렇게 모일 때는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러시다. 뭐 별난 질문이 아닙니다. 살아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해야만 실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주머니 속에서 와서 주머니 속에서 다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질문하십시오. 한 분이 질문을 해도 여러분이 다 같이, 나와 더불어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빼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어딨습니까? 서로 도반입니다.

**질문자 1(남):** 스님, 쉽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님 말씀을 이렇게 받들어서 모든 것을 들로 보지 않고 항상 근본 마음자리에 둘러

리고 예를 쓰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진도가 좀 늦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가, 지금도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항상 좀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남이 잘되면 같이 기뻐하지 않고 고래 고래 시키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알면서도 좀 고치기 힘듭니다.

**큰스님:** 편히 앉으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거요.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시기 안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놓으라고 그랬죠. 또 즐거운 마음이 생기려면 '즐거운 마음을 내게 해서 감사해!' 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양면

을 다 거기다가 놓으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꼭 부러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스스로 거길 믿으면 스스로 잘되게 이끌어 갑니다. 책은 그냥 어느 한 개의 물건과 같은 겁니다. 로봇 있죠? 로봇에게 어떠한 물건을 움직이게 할 때는 시키는 누군가

가 단추를 눌러서 그 몸통이 움직여지듯, 지금 우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잘 가게 해서 감사해!' 또, 어디가 고장이 났다 이렇다면 '고장이 나게 한 것도 너니까 고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자꾸 해 보면 나중엔 힘이 생기게 돼요. 힘이 생기게 돼서 '허허, 내가 괜히 그랬구나. 그렇게 한들 저쪽에 해로운 것도 없고, 잘될 것도 없는데, 괜히 내 생각으로 해서 나만 괜히 그렇게 됐구나.' 하고 아마 뒤우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좋든 거기에 감사하게, 또 나빠도 거기에 '내가 한 거니까.' 하고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랬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데, 오실통이라는 그 작자가 바로 컴퓨터와 같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그 능력을 한데 합해서 그냥 컴퓨터라고 이름해도 좋다.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다시 거기다 입력을 하니가 그릇이 비더라. 자꾸자꾸 그릇이 비고 또 비고 또 비고, 그러는 대로 자꾸 입력을 하니가 완전히 해탈갈게 그릇이 비더라. 그래서 아주 맑게 자기라는 놈이 등장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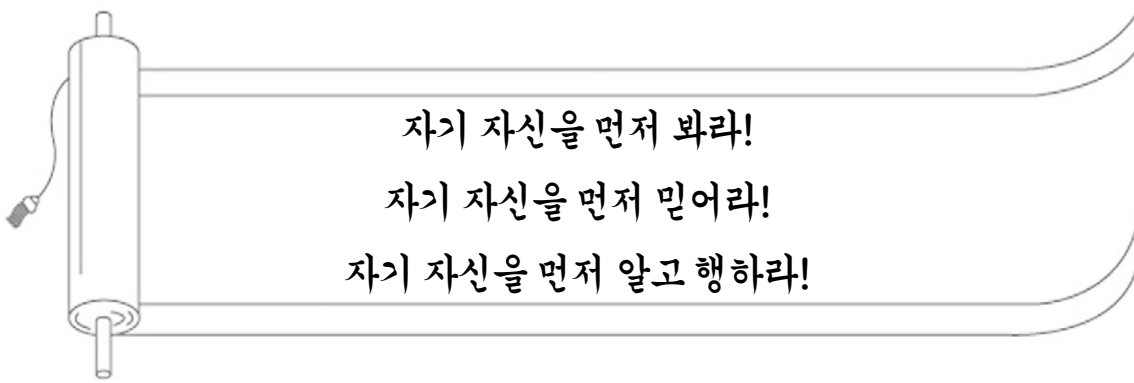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거를 팔자 운명이라고 하고, 현실에 나오는 거를 되집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은 팔자 운명이 붙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내고 그러는 것도 이게 알고 보면요, 몸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과성 업보성 세균성 영계성 유전성입니다. 그것이 다섯 가지가 포함돼서 많으나 적으나일 뿐이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냥 병들어서 죽게 하고 그렇게 해야 원수를 갚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기에 속아서 자꾸 그 마음을 나오는 그대로 쓰니까 힘들게 죽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팔자 운명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거기가 놓으면 그대로 만사가 태평입니다. 팔자 운명이 자꾸 없어지니까요. 팔자 운명이 없어지고 새 물로다가 그냥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입력하는 대로 현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지켜야 할 겁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무조건 믿고 '내내는 것도 (가슴을 가리키시며) 너 아니야? 화 안 나게 해!' 해도 좋습니다. 그런 장담하죠, 예, 도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1월 7일 범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  
자기 자신을 먼저 믿어라!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행하라!

## 대한불교총화중

총 정 이동광  
부 총 정 이정승  
총무원장 전남정

- |          |                               |
|----------|-------------------------------|
| 총회회장 최만재 | 총회부회장 기해성, 김운산                |
| 교육원장 이남은 | 포교원장 정일광 호계원장 김혜각 감찰원장 김혜암    |
| 문화원장 백만우 | 선원장 황해광 상별위원장 이만오 선거관리위원장 조고담 |
| 총무부장 김지산 | 재무부장 이지혜 사회부장 윤대암 호법부장 박정덕    |
| 조직부장 이지우 | 교무부장 이혜오 감찰부장 김일봉 문화관리부장 문보현  |
| 문화부장 박보광 | 포교부장 박지혁 포교기획부장 전신오 호계부장 박지광  |
- 서울(북)제1교구총무원장 이혜인 서울(북)제2교구총무원장 박현오 서울(남)제3교구총무원장 김병능  
경기(북부)총무원장 유법경 경기(서부)총무원장 김해암 대전총무원장 윤법진  
충청총무원장 김민경 경북총무원장 정일광 울산교구총무원장 백만우  
경남서부교구총무원장 김민월 경남중부교구총무원장 박심공 부산총무원장 최만재  
강원제1교구총무원장 정해산 강원제2교구총무원장 허승호 광주, 전남총무원장 김현산  
제주총무원장 김청해 전북총무원장 이기중

총무원: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호 전화 031)592-8891 / 팩스 031)592-8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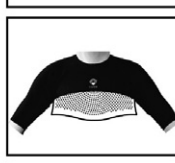
본지 766호(1월13일자) 26면에 게재된 '대한불교총화중' 정정 광고에서 현재 총화중 임원명단 중 '경기(북부)총무원장 유법경' 스님이 본지 편집 착오로 누락 되었음을 바로 잡습니다.  
총화중 중무행정예 혼란을 끼쳐 드린것 사과드립니다.

##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의심내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발로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랑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충보충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뺨아름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염,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뺨뺨함, 오십견과 스트레칭 순간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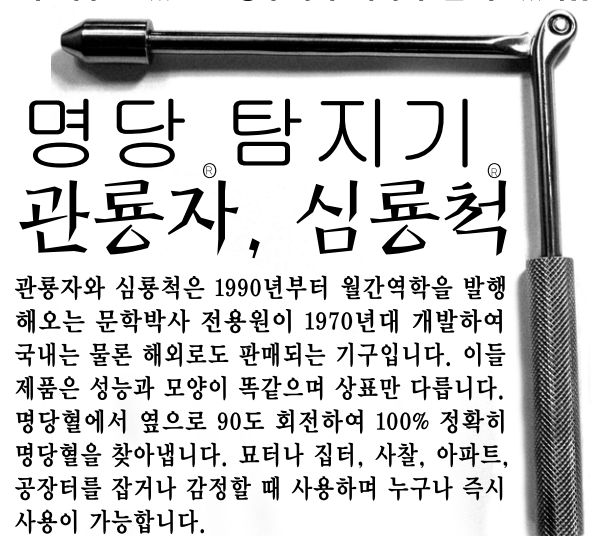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도란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들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신삼매요, 보석연꽃팬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 무릎보호대), 칼라차크라, 배요은대, 다보명자, 아마따자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www.법왕정사.kr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 해오는 문화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월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백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학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일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